現場에서서

채란양계의 성패는 육추와 육성에

(철저한 기장만이 성공의 지름길)

우리의 양계산업은 생산물의 가격에 비해 엄청난 폭의 諸생산비의 앙등으로 매우 어려운 길을 걷고 있다. 년초부터 대두된 사료가의 인상은 아직도 지칠줄 모르고 계속 상승기류를 타고 가격의 내리막길을 잊은채 마구 오르고만 있다. 여기에 우리 생산자는 지혜를 짜 그 탈출구를 찾아야 한다.

본지는 차제에 생산비절감을 위해 경험의 가치를 정립화하여 연구·노력하는 성실한 양계가를 찾아 나름대로의 수익을 위한 노력을 소개함으로서 독자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취 재 부)

과학하는 양계인

기자가 전주시에서 진안쪽으로 15km떨어진 종남산 송광사옆에 위치한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의 동인농장을 찾은것은 추석이 지난지 얼마안된 9월 하순이었다.

크지도 작지도 않은 2만수 규모의 계사 10여동은 여느 양계장과 별로 다를바가 없으나 차가 양계장을 들어가기 전 바로 문앞에 흐르는 냇물이 있어 자연수로 소독을 거쳐야만 진입이 가능했다. 마침 모사료회사에서 의뢰한 단백질 사양실험 계사를 돌아보다 나오는 김철한씨에게 「요즈음 사료값등 생산비가 많이 올라 힘드시지요?」하니 「물론 전에 비해 다르지만 더욱 관리에 신경을 써 생산비를 절감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읍니다」라고 대답하는 무뚝뚝한 음성에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는 결의가 뚜렷했다.

9년전 당시 근무하던 농협에서 나와 이곳으로 12평계사 1동에 500수의 병아리를 키우기 위해 밤잠을 설치고 노심초사 미장이로, 목수로, 수의사로, 사양가로 변신, 1인 5역의 노고로 이룩해 놓은 2만여수 규모의 10여동의 계사중 안내해 주는 계사를 들어가니 시설은 아직 미비한 듯 했으나 그 깨끗한 청결상태와 함께 닭들을 분리하여 A, B… 군으로 명패를 붙여 놓은 것이 눈에 띈다.

「얼마전 노계도태로 성계 7천여수만을 사육하고 있으며 새로 병아리를 입추를 시작했읍니다」하며 설명한다.

철저한 기록과 자기반성으로 성공

이어서「요즈음 산란율이 떨어지면 사료의 질을 먼저 탓하는 일부 사양가들이 있는데 사료를 탓하기에 앞서 과연 나는 사양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있나를 반성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또한 일일사료 급여량과 생산된 계란의 숫자를 기록 분석 검토하는 일은 매일 잊지 않고 해야하는 양축가의 가장 필요한 일과지요 어떻게 하면 산란율이 좋아지고 생산원가가 적게드는가 하는데 온갖 노력을 기울여 닭을 길러 내가 돈을 벌자는 것인만큼 혼신의 노력을 다 해야겠지요」하고 자기사업에 대한 애착을 얘기한다.

요즈음 전국적으로 요원의 불길같이 일어나는 정화운동도 실은 이곳에서는 벌써부터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어 흐뭇하였다.

육성만 잘하면 90% 성공

기자는 육성부터 차근차근 알고싶었다.

「이 농장의 육성부터 산란까지의 사양과 사료절약에 대해 얘기좀 해 주십시오」

「다른 양계장과 큰 차이는 없으나 사람도 어린아이때 영양상태가 좋아야 잘크고 또 건강한 시민으로서 일익을 할 수 있겠죠. 어려서 비실비실한 사람이 커서 아무리 인삼녹용이 무슨 소용입니까. 질병피해도 어린아이때 많지 않읍니까?부화장에서 30~35일간 초생추 사료급이를 요구합니다만 그렇게 하니 프로그램상의 체중에 미달하고 또 경험상으로 폐사가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50일 까지는 무제한으로 유추사료를 급여하여 좋은환경에서 잘먹여 유추시 자기체중에 비해 빠른성장속도를 카바하고 질병저항도 강하게 충분한 영양공급과 아울러 방역관리를 철저히 해 줍니다. 물론 사육 전기간 계사내 환경에 대하여는 교과서적인 방법에 게을리 하지 않고 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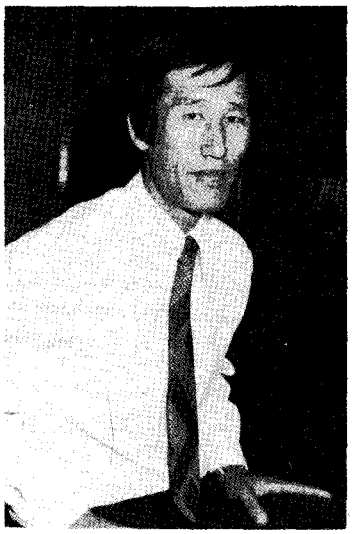
산란계도.육성기간 제한급이를

이후 50일령부터는 중추사료로 120일령까지는 50g에서 90g 까지 증가시키면서 제한급이를 실시합니다. 일반적으로 육추과정에서 특별히 급이에 신경을 쓰는 양축가들은 별로 없어 조악한 대추사료를 90~ 100일 부터 급여하나 우리는 120일령까지 급여하여 혹 영양부족이 될까하는 우려에서 기일을 늘여주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120일령 부터 초산까지(140~ 150일령)는 대추사료를 급여해 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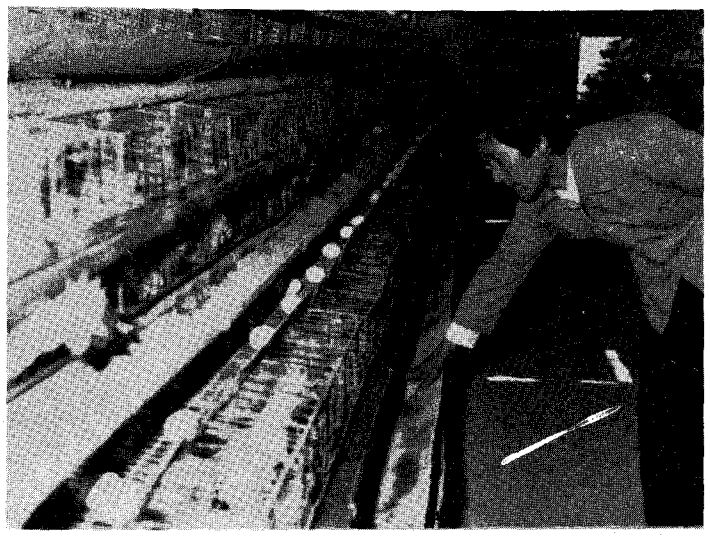
초산은 체구가 큰 후에

프로그램상에는 무제한 급이하는 경우120~130일령이면 초산이 시작되고 산란율이 5~10%되면 산란초기사료를 급여하나 경험에 미루어 봐 50일령 부터 사료량을 증가시키면서 제한급이를 하는 경우 거의 정확하게 150일령 즈음에 산란이 시작되고 이때 바로 산란사료를 급이합니다. 가금관계 영양학자들 말씀이 닭의 성성숙은 150일령 정도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이때가 바로 계군이 알을 낳을 수 있는 소질이 있을 때인데 산란 5~10%를 기다려 산란초기 사료를 먹일필요가 없다는 생각에서 산란직후 바로 산란계 사료로 바꾸어 주는 것이며 이때 초산계 체중은 1.3~1.4kg을 유지 합니다.

그 후는 수익에 바로 직결되는 만큼 산란피크를 빨리 가져올 수 있도록 산란피크까지는 무제한급이를 실시합니다(약 110g~ 115g)



△ 동인농장 대표 김철환씨 근영



△ 일일 사료급여량과 생산물의 함수관계는 항상 기록을 유지 분석 검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산란피크에 도달하면 보통 2개월 정도는 지속이 되는데 피크때 부터는 1개월간에 걸쳐 엄격한 실험을 실시합니다. 산란피크에 도달한 계군을 100수 내지 150수씩 분리하여 분리된 각 계군에 1일 1회의 사료를 급이할 양별로 A(100g), B(105g), C(110g), D(115g), E(120g), F(125g) 계군으로 나누어 급이를 실시합니다. 이 상태로 1개월간을 계속하면서 각 계군에 따라 계란생산량을 집계 정확한 통계자료를 산출합니다. 그러면 A(100g)의 사료를 먹은 계군의 사료비는 최하위이고 또 산란율도 최하위 일 것입니다. 반대로B(125g)의 사료를 먹은 계군을 사료비는 최상, 산란율도 최상을 유지할 것이며 그중간 D(115g)계군은 사료비 산란율 공히 중간일 것입니다. 이때 그 당시의 1개월 사료비와 여러 생산비를 따져 시세표에 의해 산란율에 대한 계란값 수입을 계산, 6계군중 가장 경제성 있는 계군을 선택하여 A, B, C, D, E, F 계군중 한 계군의 사료급이량을 계속적인 제한급이에 이용하게 됩니다. 물론 이때 난가에만 기준할 것이 아니라 사료비와 생산량과의 함수관계를 가지고 계산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학적인 근거나 다른방법으로 설명하기는 힘들지만 생각으로는 품종요인, 여러환경요인, 육성과정, 기상요인등에 따른 전계군 특징을 뽑아내는 방법이지요, 같은 조건에서 키운 닭으로서 그들 조건에 가장 경제적인 사료급이 모델을 선택하여 경영에 도움을 얻자는 것이지요. 경험상으로 닭개량성적 또는 원종농장의 사양지침서에서 제시하는 많은 데이타가 너무도 사양농가의 성적과는 차이가 많은것 같더군요」

「그러기 위하여는 많은 노고를 들여야 겠군요」하는 기자의 말에

노력한 만큼의 댓가는 반드시 돌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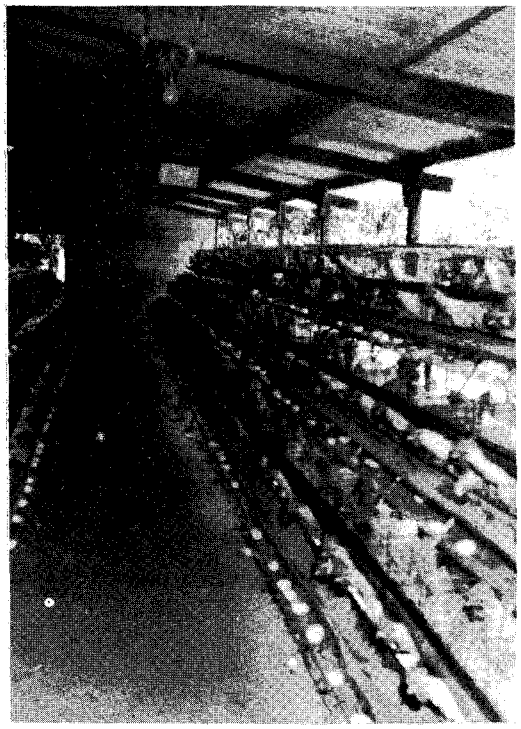
「이것이 내 사업이고 천직인데 어떻게 게을리 할 수 있읍니까? 좋은병아리, 좋은사료, 좋은기술이 있다고 수익이 절로 생기지는 않

지요, 내가 충실히 노력할 때 그 만큼의 결과가 주어지는 만큼 그 정도 수고는 감수 해야죠, 아니 그보다 더한 수고도 없이 어떻게 양계업을 할까요?」하고 도리어 반문한다.

사료값 상승이후 계란값 1원을 위한 아우성도 꼭 필요한 문제임에는 틀림없다. 거기에 요사이 같이 제반 생산비가 앙등할 때 조금이나마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고, 비싼 외화로 수입한 사료를 절약할 수 있다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매우 바람직한 일일 것이다.

특란값에 따라 환우도

김철한씨는 이외에 육성비절약과 더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한 노력으로 강제환우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하여 기자는 그점을 물었다.



△보기 드물게 청결상태가 좋은 실험 계사
(지붕에 A군이라는 표식이 보인다)

「환우를 실시해 좋은 성적을 올리고 있다는데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읍니까?」

「일반적으로 널리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으나 육성시와 산란시 제한급이를 실시하기 때문에 환우기간이 짧고, 환우후 산란피크가 높고(1차환우사—84%, 2차환우시—76%까지 유지), 산란지속율이 긴것 같읍니다」

철저한 기장으로 경영을 합리화

장시간 대화를 나누는 중에 기자는 철저한 기록으로 연구노력하여 항상 문제의 원인을 파헤치고, 더욱 높은 목표를 향하여 양계인으로서 경험을 추억으로 돌리기에 앞서 경험가치의 정립화로 합리적 경영을 위해 성실한 자세로 생산에 노력하는 축산인의 자세를 읽을 수가 있었다.

김철한씨는 현재 본회 전북지부 대의원으로, 채란분과협의회 난가조절위원이며 전북 완주 라이온스크럽 총무를 맡고 있다.

양계에 대한 소신을 묻는 기자에게

「닭을 자식처럼 키우고, 환경은 내방처럼 청결하게 하고, 생산원가절감에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읍니다」하고 소박한 웃음을 짓는다.

과학하는 양계인은 성공한다는 진리는 김철한씨를 통하여 다시한번 증명되었다. 씨는 또 자기가 얻은 경험과 지식을 혼자만 간직하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양계인들에게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자료를 만들어 프린트를 하고 직접 지식을 전달하는등 지역사회 양계발전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

새시대의 숨은 양계인 김철한씨는 오늘도 행동으로 합리적 경영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